

새 학년 새 학기, 우리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 동수원교회만의 특별한 예배 이야기

송진우 목사(동수원교회 담임)

신앙의 계승, 예배에서 시작된다

이번 특집을 준비하면서 총회가 '다음 세대' 대신 '신앙의 계승 세대'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한 것을 알게 됐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곰씹을수록 고개가 끄덕여졌다. '다음'이라는 말 속에는 아직 차례가 오지 않은 존재,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기다리는 존재라는 느낌이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신앙의 계승 세대' — 이 표현이 우리의 고민을 더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앙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것은 목회자라면 누구나 붙들고 씨름하는 질문이다. 교실에서의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신앙은 지식이기 이전에 삶의 태도이고 영적인 정서다.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시간과 공간이야말로 신앙이 가장 생생하게 전달되는 자리라고 나는 믿는다. 동수원교회의 '새학기 축복예배'는 바로 그 믿음에서 시작됐다.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매년 새 학년이 시작되기 직전,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한 학년을 더 올라간다는 자부심, 새로운 반과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설렘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 아이들은 말하지 않을 뿐, 그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을 품고 새 학기의 문턱을 넘는다.

부모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지만, 그 기쁨 속에는 늘 걱정이 따라온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자라 줄 수 있을지 — 아이와 부모가 함께 그 복잡한 감정을 안고 새 학기를 맞이한다.

나는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목회적 돌봄이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때라고 보았다. 세상은 학원과 교재로 새 학기를 준비하라고 가르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문을 먼저 열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설렘은 감사의 제목으로, 불안과 두려움은 기도의 자리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그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새학기 축복예배'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Back to School'에서 영감을 얻다

나는 2023년 12월 동수원교회에 담임목사로 취임하기 전, 약 13년간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목회했다. 인디애나 주 포트웨인의 한마음교회에서, 나는 미국의 'Back to School' 문화를 예배에 접목해 보았다.

미국은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일주일 동안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대형마트들은 학용품 세일에 나선다.

이 즈음, 나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 주를 'Back to School Sunday'로 정하고 온 세대 예배를 드렸다. 설교를 마친 후,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강단으로 나오게 했다. 가족들이 아이들을 안고 기도했고, 전 교인이 그 주위에 원을 그리며 서서 함께 축복 기도를 드렸다. 당시 교인이 약 30명이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를 채웠다. 숫자는 작았지만, 그 예배 안에 흐르던 진심과 은혜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교인 모두가 그 예배를 사랑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이 경험을 한국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고자 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동수원교회의 '새학기 축복예배'다.

신앙의 계승 세대가 주인공이 되다

새학기 축복예배는 매년 새 학년이 시작되기 직전 주일(주로 2월 말 혹은 3월 초), 3부 예배 시간에 온 세대 예배로 드린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설교를 제외한 모든 예배 순서를 교회학교 아이들이 직접 맡는다는 것이다. 설교도 10분을 넘지 않는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아이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된다. 중고등부 연합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대표기도와 성경봉독, 헌금 위원까지 — 어른들이 늘 맡아 왔던 그 자리에 아이들이 선다. 이 날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익숙한 찬양곡들을 선곡하여 함께 부른다. 보통의 주일 장년예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율동도 함께 한다. 어린이 워십팀이 나와 율동을 인도하면,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하며 손과 몸을 움직인다. 어른들이 어색하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따라 하는 그 시간, 예배당 안은 웃음꽃으로 가득 찬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함께 부르는 이 경험 자체가, 이미 신앙 교육이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는 데 집중한다. 아이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설교자인 나는 이 날 양복을 입지 않고 편안한 복장으로 강단에 선다.

설교 이후, 이 예배에서 가장 감동적인 시간을 가진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직접 기도해 주는 시간이다.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온 가족이 서로 안은 채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품에 안긴 채 축복의 기도를 받는다.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축복하고, 아이들도 그 기도를 받으며 함께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말이 아니라 손길과 눈물로 전해지는 신앙 — 이 순간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믿음의 유산이다.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 홀로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도 있다. 우리 교회는 이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 교사나 목회자가 그 아이 곁에 앉아 함께 기도해 준다. 부모를 대신해 안아 주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할 때, 아이는 교회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영적 가족임을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세 번의 새학기 축복예배



동수원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새학기 축복예배를 드려왔다. 매년 주제를 정할 때 나는 한 가지 기준을 붙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 이 두 가지가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2024년 2월 25일, 첫 번째 새학기 축복예배의 주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로마서

8:35-39)이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아이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선포로 새 학기의 문을 열었다.

2025년 3월 2일, 두 번째 예배의 주제는 '너는 꽃이야'(마태복음 19:13-15)였다.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안으셨던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선포했다.

2026년 3월 1일, 세 번째 예배의 주제는 '반짝아이'(에베소서 5:8)였다. 하나님의 자녀인 아이들이 '이미' 빛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가정과 학교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존재로 살아가도록 파송하는 흐름 — 이것이 3년의 새학기 축복예배를 관통해 온 방향이었다.

새학기 축복예배를 통해 얻게 된 열매들



새학기 축복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소중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먼저,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 온 교회가 자신의 새 학기를 축하하고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 공동체가 나를 응원한다'는 믿음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다.

부모님들의 반응도 뜨겁다. 자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가슴으로 느낀다.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신앙 — 그 계승이 바로 이 예배 안에서 일어난다.

예상치 못했던 열매도 있었다. 바로 전도다. 동수원교회는 새학기 축복예배를 믿지 않는 가정을 교회로 초대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예배를 드린다'는 한 마디에, 믿지 않는 부모들도 귀를 기울인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들 손을 잡고 처음 교회 문을 넘은 가정들이 예배 안에서 감동을 받고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 감사하게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

함께 시작하려는 교회를 위한 제언

새학기 축복예배를 처음 시도하려는 교회를 위해 몇 가지를 나누고 싶다.

첫째, 아이들을 예배의 주체로 세우라.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실제 예배

순서를 맡겨야 한다. 찬양 인도, 성경봉독, 헌금위원 — 아이들이 그 자리에 설 때, 회중 전체가 달라진다.

둘째, 응원 영상을 미리 준비하라. 예배 전, 교회학교 교사들과 부모님, 조부모님들의 짧은 응원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예배 중에 상영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선생님이,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며 응원하는 장면은 아이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는다. 공을 들인 만큼 은혜가 크다.

셋째, 혼자 나온 아이들을 놓치지 마라.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 홀로 예배에 참석한 아이가 반드시 있다. 담당 교사나 목회자가 그 아이 곁에 앉아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 한 명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예배 전체의 온도를 결정한다.

넷째, 축복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라. 이 예배의 핵심은 터치와 기도다. 서두르지 말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어야 한다. 그 침묵과 눈물의 시간을 빼앗지 마라.

다섯째, 믿지 않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초대하라. 이 예배는 훌륭한 전도의 문이 된다. 주변의 믿지 않는 이웃에게 '우리 교회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준다'고 알려라. 아이 때문이라도 한번 와 보겠다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게 처음 교회 문을 넘은 가정의 예배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우리 새학기 축복예배 드립시다



나는 포트웨인의 30명짜리 작은 교회에서도 이 예배를 드려 보았고, 1,500명이 모이는 동수원 교회에서도 드려 보았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드리든,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새학기 축복예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신앙의 계승 세대가 예배의 주체로 세워지는 자리이며,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살아 있는 신앙을 몸으로 전해 주는 통로이고,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 되는 공동체 예배의 현장이다.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방식으로 이 예배를 시도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부모의 눈물이 자녀의 기도가 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른들의 찬양이 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신앙의 계승이 살아 있음을 함께 확인하게 될 것이다. 새 학년 새 학기, 우리는 그렇게 예배로 시작한다.

송진우牧사는 2023년 12월부터 동수원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미국 포트웨인 한마음교회에서 13년간 이민교회 사역을 했다.